

논문접수일 : 2012.09.20

심사일 : 2012.10.06

게재확정일 : 2012.10.27

베르그송의 이론으로 고찰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의의

The significance of plastic art expression through the impromptu action that is
contemplated by Bergson's theory

하 정 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시각디자인과 박사과정

Jeong Hyun Ha

Ewha Womans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베르그송 이론에 대한 고찰

- 2.1. 실재(實在)로서의 시간
- 2.2. 존재(存在)함으로서의 기억
 - 2.2.1. 잠재적 무의식 세계를 추적하는 순수기억
 - 2.2.2. 끊임없이 현재 속에 통합되는 과거
 - 2.2.3. 무수히 다양한 새로운 질(質)의 창조

3. 즉흥적 행동과 조형표현

- 3.1. 행동과 조형표현의 관계
- 3.2.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의미적 고찰
 - 3.2.1. 현재성의 지향
 - 3.2.2. 무의식적 내적 세계의 내재
 - 3.2.3. 표현의 다양성

4. 베르그송의 이론으로 고찰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의의

- 4.1. 공간화 된 시간 표현을 탈피한 새로운 조형표현
- 4.2. 지속의 두께를 지니는 현재성의 표현
- 4.3.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총체 표현
- 4.4. 다양한 질적 창조의 지속으로서의 조형표현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은 비의도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형표현의 한 방법으로, 논리적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적으로 표현되는 성질로 인해, 작가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 방법적 측면이다. 이는, 감정을 표현하여 이해를 끌어내는 예술의 궁극적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효과적인 표현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은 그 의미적 특성에 있어서, 합리적·과학적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 존재론적 사유를 하는 베르그송의 이론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베르그송의 지속 이론을 통해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의의를, <공간화 된 시간의 표현을 탈피한 새로운 조형표현>, <지속의 두께를 지니는 현재성의 표현>,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는 과거의 총체 표현>, <다양한 질적 창조의 지속으로서의 표현>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하여,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및 유럽의 앵포르멜 조형표현 사례 분석과 함께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에 대한 의의를 베르그송의 이론을 통해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응용이 적극 이루어져, 예술의 본질적 목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창작의 탐구가 활발히 시도되는데 기여코자 한다.

주제어

베르그송, 즉흥적 행동, 조형표현

Abstract

‘Plastic art expression through the impromptu action’ is one of the methods of molding expressions which was created in un-planned and illogical status and it shows the inner side of artist’s energy or emotion without rational thinking process and as a result, we could see the artist’s feeling in a frank and free manner. This, the plastic art expression through the impromptu, could be one of the effective expressions ways that are trying to get close to the ultimate goal of art, deriving the artist’s pure emotion.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is ‘plastic art expression through the imprompt action’ which exclude the logical and rational way of thinking have quite close connections with the Bergson’s theory that is looking the world in terms of existence theory.

Therefore, ‘plastic art expression through the impromptu action’ based on the Bergson’s persistence theory ‘La durée’ could be classified with the following 4 semantic properties such as <The new expressions escaped from spaced time expressions>, <The expressions of currency that have thickness of persistence>, <Overall expressions of the past existed in the form of latent state>, <The expressions as the continuity of creations of various quality oriented> and have analyzed together with Abstract Expressionism and Informel.

This study would provide the new reason for one of the expression ways that is trying to be close to the real function of art by re-illustrating through the Bergson’s theory in order to evaluate the meaning and value of ‘plastic art expression through the impromptu action’.

Keyword

Bergson, Plastic Art Expression, Impromptu Action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의 언어 형태는 verbal과 non-verbal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미술 즉 조형표현은 일반적으로 비언어를 사용하는 non-verbal 소통으로서의 언어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언어에는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는 '서술적'인 것과,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의 형상으로 드러내는 '표현적'인 것이 있다. 르네 위그(René Huyghe, 1960/1979, p.22)는 그의 저서에서 언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 구분을 하는 들라크루아(Ferdinand-Eugène-Victor Delacroix, 1798~1863)의 의견을 인용하여, 우리들의 내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지성과는 구별되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구성하는 나머지"가 있으며 미술은 후자에 대한 독자적 사명을 가진다고 말한다. 즉 non-verbal 소통으로서의 언어형태인 조형표현은 서술하는 것이 아닌 표현적인 언어이다. '표현적'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서술적'인 것에는 없는 '느낌', 다시 말해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기운이나 감정'을 내포한다(네이버 국어사전, 2012). 따라서 조형 표현-미술은 정의내리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닌 작가의 느낌인 기운이나 감정을 담아내는 '표현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더욱 '표현적'인 조형세계를 만들어 냄으로써 '표현적'이어야 하는 미술에 충실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운이나 감정을 담아내는 '표현적'인 창조는, 표현자의 느낌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드러나야만 가능하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하에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의식적인 사고를 자제하면, 보다 감성적이고 비의도적이며 다듬어지지 않아 솔직하고 순수한 작가의 기운이나 감정 자체가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다. 이는 계획 없이 즉시적이고 순간적일 때, 즉 '즉흥적'일 때 극대화되어진다. 때문에 즉흥적인 조형표현은, 작가의 느낌인 기운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 더욱 '표현적'인 창조활동을 가능케 하는 표현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언가를 그려내기 위해서 작가는 자신의 팔과 손을 캔버스 위에서 움직여야 하고, 작가의 움직임 즉 행동은 자취로서 캔버스 위에 기록되어지며, 이것들의 축적이 곧 그림이자 조형표현이 된다. 이는 곧 즉흥적 조형표현이 '즉흥적 행동의 흔적'으로서의 그림임을 의미한다. 동시에 '즉흥적 행동'의 감성적이

고 비의도적인 특성은 자유로움과 솔직함이 담긴 움직임의 흔적을 캔버스 위에 남김으로써 더욱 '표현적'인 창조를 가능케 하는 표현 방법 중 하나가 된다.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은 20세기 이후의 시대적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20세기 전후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던 과학적·실증적 중심의 사회·문화적 흐름이 점차 기존의 논리를 탈피하여 인간을 중심에 놓고 사유하고자 하였으며 상대적·비논리적·감성적·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학 철학의 분야에서,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의 상대성 이론,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현상학,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학,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의 분석심리학 등과 같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은 17세기 이래 발전되어온 기계론적 과학과 합리적 사고의 한계를 파악하고 존재 자체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20세기 이후 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기존의 회화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미술 분야에서 시도되어졌다. 초현실주의(超現實主義, Surrealism)·추상표현주의(抽象表現主義, Abstract Expressionism)·앵포르멜(Informel) 등이 그 대표적인 시도들이며, 이와 같은 미술사조들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벗어나 무의식적이고 비논리적·비의도적·감정적인 표현들이 즉흥적인 행동을 통하여 시도되어진다.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은 이성적 판단을 줄이고 무계획적·즉시적·비의도적인 표현을 추구함으로써, 20세기 이후 과학적·논리적 사고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려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회 문화적·미술사조적 흐름과 맥락을 함께 이어가며, 동시대의 합리적·과학적 사고에 문제를 제기하는 베르그송의 이론과도 사상적 배경을 함께 한다. 때문에 베르그송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을 고찰함으로써, 그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 국내 연구에서 즉흥적 표현기법이나 즉흥적 표현기법이 활용된 미술사조에 대한 연구는 송지은(2008), 김정현(2008)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즉흥적 조형표현을 '즉흥적 행동'의 결과물로서 보고, 존재적 측면에서 '즉흥적 행동'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조형표현 분석이 이루어진 사례는 미미하다. 또한 베르그송의 이론과 현대 미술 및 현대 패션 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김복수(2001) 및 양희영(2007)등을 통해 선행되고 있지만,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베르그

송 이론과 즉흥적 행동의 결과물로서의 조형표현에 대한 연관성 고찰 및 가치 재조명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르그송 이론의 관점에서 본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에 대한 의의를 새롭게 고찰해 보고 그 가치가 재인식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조형 표현 활동에 있어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방법적 측면이 더욱 적극적으로 응용 및 탐구되어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베르그송의 이론을 통해서 본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의의와 가치를 고찰하기 위해, 사회·문화·예술에 대한 문헌자료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베르그송의 '지속(持續, durée)' 이론에 대하여 시간과 기억의 관점에서 각기 고찰해 본다.
2.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진다. 행동과 조형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의미적 고찰이 이루어진다.
3. 베르그송의 이론과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의미적 연관성을 분석한다.
4.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 사례인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 회화를 중심으로 하여, 베르그송의 이론적 관점에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5. 더욱 확장되고 활발한 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형표현 방법 중 하나로써의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 및 제시한다.

2. 베르그송 이론에 대한 고찰

베르그송은 17세기 이래에 발전되어 온 기계론적·과학적 인식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고, 인간 지성의 고정화 시키는 성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자연과학은 지성의 산물이고 이 지성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다보니, 마치 이것이 실재인 것처럼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지성이란, 생존의 과정에서 실용성을 위해 실재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다룰 수 있도록 실재가 아닌 추상적 공간을 적용시켜 표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는, 실재(實在) 자체 즉 존재(存在)하는 자체에 대한 고찰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베르그송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존재론적(存在論的) 측면에서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철학을 발전시킨다. 그의 이론은 실증주의(實證主義, positivism)와 결정론적(決定論的, deterministic)인 진화론에 대한 보완을 하는 철학적 사유이다.

2.1. 실재(實在)로서의 시간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시간은, 양희영(2005)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어있듯이, 수학적이고 자연과학으로서의 '동질적 시간'과 의식이 침투되어 있는 참다운 시간으로서의 '순수지속'으로 분류된다.

동질적 시간'으로서의 시간은, 기존의 과학적 사고에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전개된다. 사물을 고정화·공간화 하는 논리인 지성은, 시간을 수로 환산하고 양적으로 측정하며, 이렇게 나누어진 시간들을 더하거나 빼는 등의 종합이 가능한 가역적 시간으로 취급한다. 즉 시간을, 불연속적으로 끊어져 있는 개별 시간들의 합으로써, 공간화된 시간의 개념으로 보았다. 이것은 연속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어져 있는 개별 시간들의 연결로, 참된 연속성 그 자체는 아니다. 마치 끊어진 필름을 연결해서 지속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와 같다. 이와 같은 시간에서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느껴지는 고유한 내용들은 배제되고, 진정한 지속과는 다른 표시나 기호로써의 공간적인 시간이 표상된다. 때문에 이러한 시간은 모든 것을 동일한 질로 등질화(等質化)시켜 버린다. 예를 들어, 오후 3시라는 시간은 나에게 있어 오늘의 오후 3시-어제의 오후3시-1년 전의 오후 3시 모두 다른,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후 3시'라는 수로 환산된 시간 개념으로서 등질화된다.

그런데 인간 의식의 존재에 있어서 참다운 시간이란, 지성에 의한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시간이 아닌, 지속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베르그송이 말하는 '순수지속'으로서의 시간이며, 존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지속'이다. 이는 수로 환산하거나 양으로 측정하여 동일화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각기 다른 내용들이 긴밀하게 융합되어 나아가는, 시시각각 또 다시 새롭게 변화하는 연속으로서의 시간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그 멜로디를 지금 바로 들은 음계와 바로 이전에 들은 음계로 각각 끊어서 정지되어 있는 음들의 연결로 듣지 않는다. 지금 들은 음은 곧바로 과거가 되며 미래의 음은 잠시 후 현재가 되듯이, 각 음들은 바로 앞의 음과 바로 뒤의 음과 경계선 없이 이어져 연속적으로 흘러간다. 우리

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 곡을 전체로서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멜로디로 받아들이듯이, 순수한 지속은 단절됨 없이 변화하고 있는 존재 자체의 총체적인 흐름을 의미한다. 때문에 동일한 음이 여러 번 반복되어 등장할 지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동일한 음으로서 받아들여지며 다양한 감성 상태를 만들어낸다. 결국 무수히 다양한 변화의 흐름 자체로서,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한 곡의 음악으로 우리의 의식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베르그송의 이론에서 시간이란, 이와 같은 음악처럼, 인간 존재의 실재적 측면에서 사유해야 하는 '지속'으로서의 참된 연속성을 의미한다. 참된 시간은 수많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끊어지고 단절된 부분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지속'이다.

2.2. 존재(存在)함으로서의 기억

의식의 존재에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은 의식이 있는 것이고, 의식이란 단편적인 오늘의 기억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연속적으로 축적되어진 기억 모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딱 끊어진 지금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기억이 없다면, 흐르는 시간 속에 존재함으로서의 의식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만 기억하며 이전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는 나의 존재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육체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존재의 근원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이 있음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의 변화와 진화를 축적하고 종합할 수 있으며, 기억의 연속적 이어짐으로써 존재의 지속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베르그송이 말하는 기억은, 과학적 관점에서의 과거 경험을 저장하고 필요시 인출하는 절대적 의미의 기억이 아니다. 이는 존재적 관점에서의 지속하는 인간을 가능케 하는 상대적 의미의 기억으로서, 그 역할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과정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존재함으로서의 기억은 과거를 축적하여 창조적 무의식 세계를 형성하고, 둘째, 이러한 기억은 항상 현재와 결합하여 융합되며, 셋째, 그 결합으로 인해 기억은 다양하고 새로운 현재의 질적 변화라는 결과를 창출해낸다. 즉, '잠재적 무의식 세계를 축적하는 순수기억', '끊임없이 현재 속에 통합되는 과거', 무수히 다양한 새로운 질(質, quality)의 창조'라는 세 가지 단계적 역할로 나누어 지속하는 인간을 가능케

하는 기억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2.2.1 잠재적 무의식 세계를 축적하는 순수기억

'잠재적 무의식 세계를 축적하는 순수기억'은, 베르그송이 나눈 습관적 기억(習慣的 記憶, *souvenir habitude*)과 순수기억(純粹 記憶, *souvenir pure*)의 구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습관적 기억은 반복을 통해서 자동적인 운동 체계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며,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애써 운전하는 방법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연스레 운전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습관처럼 되어버린 기억을 말한다. 이는 실용적 필요와 지성에 의해 반복적으로 되풀이됨으로써 만들어진 습관적인 기억이다.

반면, 순수 기억은 실천적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보존되는 순수 과거를 의미한다. 이는 김재희(2010)의 연구에서 논의된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지각하는 것 이상의 매우 많은 것을 잠재적으로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순수기억은 현재의 의식에 상기되는 과거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 과거라 보아야 한다. 이는 존재함으로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은 물론 그 외까지도, 지속 속에서 생성되는 각기 다른 질의 상태이자 지성에 의한 실용적 고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순수한 기억을 의미한다. 이것은 존재하는 의식의 깊숙한 곳에 누적되어 거대한 잠재적 무의식을 형성해 낸다. 존재적 측면에서 지속의 개념이라 볼 수 있는 의식은 곧 기억의 연속적 축적이며, 존재적 측면에서의 기억이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순수기억을 무한하고 계속적으로 쌓아가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하게끔 함으로써 과거의 총체인 무의식 세계를 형성한다.

2.2.2 끊임없이 현재 속에 통합되는 과거

'끊임없이 현재 속에 통합되는 과거'는 지속으로서의 기억이, 시시각각 변하는 과거를 축적하여 현재 속에 연장시키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즉, 과거의 기억은 과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현재에 들러붙어 결합한다. 우리가 지각하고 행위 하는 때 순간, 바로 지금 일어났던 지각은 지각함과 동시에 또한 곧 바로 과거의 기억이 되며, 이 과거의 기억은 또 다시 현재의 순간과 붙어서 분리되지 않은 채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진다. 스티븐 커는 "인간의 의식은 연상(連想) 심리학자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따로 떨어진 관념들의 고요한 이행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경험에 교착하고, 스며들고, 융합하고, 훑어 내리고, 잡아먹는 기억의 벽력같은 행위야말로 의식이다."라고 하였다 (Stephen Kern, 2003/2004, p.90). 이처럼 의식은 기억

의 연속적인 축적으로서 과거의 현재 속 지속을 의미하며, 기억은 곧 두터운 현재 안에 포함되는 과거라 할 수 있겠다.

2. 2. 3. 무수히 다양한 새로운 질(質)의 창조

‘무수히 다양한 새로운 질의 창조’는, 우리 내면에 있는 잠재적인 과거 총체가 현재 속에서 다시금 현실화됨을 통해 가능해진다. 스티븐 켄(Stephen Kern, 2003/2004)에 의하면 베르그송은 과거의 모든 경험은 아무리 오래전에 일어난 것일지라도 현재와 끊임없이 상호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즉 과거의 총체인 순수 기억은, 현재 속에서 매 순간의 현재와 다시금 결합하는 현실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 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것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친구를 보아서만 느껴지는 것들이 아니다. 이전에 그 친구와 보낸 시간들 속에서 경험한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총체가 현재 순간과 맞물리면서, 어제의 그 친구와는 또 다른 오늘의 그 친구라는 새로운 질적 변화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과거 총체인 순수기억으로 인해 가능해진다.

이처럼 잠재의식 속에 축적된 거대한 기억인 순수기억이자 무의식은, 현재에는 지성적으로 무용하므로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순수 기억은 곧 잠재적인 과거 일반이며, 이러한 잠재성이 현재에 살아남아 지금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존재하는 우리의 의식 세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들을 창조해 나간다. 기억 즉 과거의 총체이자 순수기억이 축적되어진 잠재적 무의식 세계는 현재와 결합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질을 창조해낸다. 기억은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을 가져오는 인간 존재의 풍부한 잠재적 원천으로써, 다양한 질의 창조적 지속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3. 즉흥적 행동과 조형표현

3.1. 행동과 조형표현의 관계

행동이란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2012). 그런데, 조형표현 특히 회화는 작가의 행동인 손의 움직임을 통한 흔적 하나하나가 축적된 결과물이다. 행동은 화가의 내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붓놀림을 가능케 하고, 그 붓놀림에 의한 터치들이 모여 그림을 만들어낸다. 특히 르네 위그는 조형표현 중, 소묘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완성된 미술품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다. 마멸되어 없

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조금도 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죽은 듯 한 정적(靜的) 외양(外樣)도 실제에 있어서는 살아 있는 동작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며, 그 겉모습 자체가 사실은 산 동작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René Huyghe, 1991, p.42)

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행동의 기록은 고스란히 화폭 위에 담겨져 화가의 감정을 드러낸다. 행동은 느낌이 담겨진 표출 자체이므로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한 수단이 된다. 때문에 설명하거나 서술하는 것이 아닌 ‘표현적’인 예술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행위를 통한 움직임의 자취로써 굳어진, 화폭 위의 이미지만큼 적합한 것은 없을 것이다.

3.2.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의미적 고찰

즉흥(卽興, improvisation)이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감흥. 또는 그런 기분’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2012). 따라서 즉흥적 행동이란, 특정 자극에 대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그 감흥이나 기분을 표출해내는 동작 혹은 움직임이다. 회화는 화가의 행위 즉 행동의 흔적이 축적되어진 결과물이자 움직임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굳어진 이미지라고 언급하였는데, 때문에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은 ‘즉흥적 행동’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흥적 행동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 역시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3. 2. 1. 현재성의 지향

즉흥적 행동은 매우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과거가 아닌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흥적 행동은 어떠한 자극 혹은 자발적인 내적 감정의 동요가 일어남과 동시에 이것이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출되는 것으로써, 특정한 내적 상태가 생성되는 순간의 그 자체가 아무런 가공 없이 솔직하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끊어져 있는 개별 동작들의 연결이 아닌 빠르게 흐르고 있는 동작의 연속적인 과정 자체를 의미하며, 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전체를 포함하는, 현재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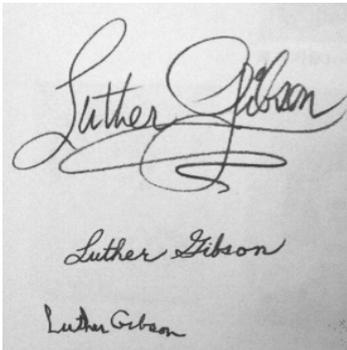
이처럼 즉흥적 행동은 즉각성·순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곧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 자체가 내재되어 있는 현재성을 지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즉흥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형표현 역시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의 과정 자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현재의 고체화라고 볼 수 있다.

3. 2. 2. 무의식적 내적 세계의 내재

행동 안에는 행동하는 주체에게 축적되어 있는 잠재적 세계가 내재되어 있다. 쉽게 말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는 미처 내가 인지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만의 기질인 내적 본질이 담겨 있다. 이는, 행동하는 주체가 이제까지 경험해 온 모든 것들이 한데 융합되어져 주체의 내적 세계 전반에 잠재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2008)의 연구 내용 중, 과거의 체험이 언어적 기억으로 두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존재로 스며들어 나의 일부가 된다는 주장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처럼 개개인 고유의 잠재의식적 특성이 행동 안에 내재되어 있음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 속에서 그 구체적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베티 에드워즈(Betty Edwards, 1999/2000)는 신체 움직임의 결과가 선으로 나타나는 서명에서, 당신의 서명 필체는 바로 당신을 나타낸다고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루터 김슨(Luther Gibson) 서명[그림 1]에서, 루터 김슨이라는 문자는 동일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이 동일한 문자는 각기 다른 루터 김슨의 행동의 흔적인 선으로써 서명으로 표현되어지며, 이 때에 그 선의 느낌만으로도 각각의 루터 김슨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림 1] 루터 김슨 (Luther Gibson)의 서명

“첫 번째의 Luther Gibson은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보자. 당신은 아마도 Luther Gibson이라는 사람이 내향적이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것과, 중간 색 옷보다는 밝은 색 옷을 즐겨 입는 편일 것이라는 데 나와 동감일 줄 안다. 그리고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활동적이고 얘기하기를 즐기며 극적인 면도 가지고 있을 것 같다.”(Betty Edwards, 1999/2000, p.48)

즉, 행동의 흔적인 선으로 이루어진 서명만으로 서명한 사람의 개성을 읽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명을 할 때에 어떻게

서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무의식적이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써내려가거나 휘갈겨 쓴다. 이는 곧 서명이라는 것이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며 특별한 의식적 집중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적인 행동임을 뜻한다. 이와 같은 비의도적인 행동 속에는, 행동하는 주체의 내면에 오랜 시간 쌓여 온 잠재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고, 그 잠재적 성향은 곧 행동의 흔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사적이다시피 일어나는 즉흥적인 행동의 특징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표출에서는, 행동하는 주체의 내면에 축적되어 있는 잠재적 무의식이 의식적 사고에 의한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출되어진다. 따라서 즉흥적 행동과 행동하는 주체의 잠재적 무의식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성들을 종합해보면, 즉흥적인 행동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조형표현이란 단순히 주체의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물이 아닌, 움직이는 주체의 내적 세계 전반에 잠재되어 있는 본질이 스며있는 결과물이다.

3. 2. 3. 표현의 다양성

즉흥적 행동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을 거치지 않은 채 즉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신체적 운동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적 기제가 채 파고들 여유도 없이 일어나는 즉흥적인 신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비의도적이며 비논리적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표출되어지는 행동은, 계산되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미처 다듬지 못함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움이 잘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고정적 사고를 통한 완전하고 정리되어진 식상한 표출이 아닌, 불완전하고 예기치 못한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결과들이 창조된다. 때문에 즉흥적 행동은 매 순간 다양한 변화를 드러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이것은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동일할 수 없는 즉흥적 행동의 다양함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흔적이라는 결과로 캔버스 위에 존재하게 된다.

4. 베르그송의 이론으로 고찰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의의

베르그송의 존재론적 철학 사유는 지성적 · 과학적 사고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남으로써 더욱 표현적이어야 하는 예술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가 될 수 있

다. 이처럼 베르그송의 이론과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은 그 발생 배경이 유사하고, 세부적 특성들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베르그송의 이론으로 고찰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을, 구체적인 조형표현 사례들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를 새롭게 정립해 보고자 한다.

시각 예술에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은 20세기 현대미술 중 초현실주의에서의 오토마티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추상표현주의에서의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¹⁾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앵포르멜²⁾과 특히 타시즘에(Tachisme)³⁾서 활발하게 시도되어졌다. 이와 같은 미술사조들에서는, 기존 회화의 개념을 탈피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나 의식 이외의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초현실주의에서 무의식을 표현하는데 활용된 자동기술법(Automatism)⁴⁾은 프로이트 심리학의 무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⁵⁾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억압되거나 부정되어 병리적 상태로 표출되는 고통스러운 체험들이나 충동들의 집단이며, 때문에 충만한 잠재성으로 현재의 의식과 삶을 창조하는 긍정적 생산력으로서의 베르그송의 무의식과는 다르다는 김재희(2000)의 연구에 따라, 본 장에서의 조형표현 사례분석은 초현실주의를 제외한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을 위주로 한다.

앞서 베르그송의 이론을 크게 <실재로서의 시간>

과 <존재함으로서의 기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재로서의 시간>은 ‘흐르고 있는 순수한 지속’으로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존재함으로서의 기억>은 ‘잠재적 무의식 세계를 축적하는 순수기억’, ‘끊임없이 현재 속에 통합되는 과거’, ‘무수히 다양한 새로운 질(質, quality)의 창조’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은, <현재성의 지향>, <무의식적 내적세계의 내재>,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의미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베르그송의 이론과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의미적 연관성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베르그송의 이론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의미
실재로서의 시간	흐르고 있는 순수한 지속	현재성 지향
존재함으로서의 기억	끊임없이 현재 속에 통합되는 과거	
	잠재적 무의식 세계를 축적하는 순수기억	무의식적 내적 세계의 내재
	무수히 다양한 새로운 질의 창조	표현의 다양성

[표 1] 베르그송의 이론과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상관성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첫 번째 의미는 <현재성의 지향>은 그 구체적 조형표현의 사례를, 베르그송의 <흐르고 있는 순수한 지속>으로서의 실재하는 시간과 <끊임없이 현재 속에 통합되는 과거>로서의 존재하는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각기 4.1과 4.2에서 살펴보겠다.

<무의식적 내적 세계의 내재>로서의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의미는, <끊임없이 현재 속에 통합되는 과거>라는 베르그송의 기억의 성질로 4.3에서 구체적 조형표현 사례와 함께 고찰해보겠다.

세 번째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의미는, <무수히 다양한 새로운 질의 창조>라는 베르그송의 존재론적 기억의 관점에서, 그 조형표현 사례들을 통해 4.4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4.1. 공간화 된 시간 표현을 탈피한 새로운 조형표현

20세기 이전의 많은 조형 표현, 특히 회화에서는 대부분 원근법이나 투시도법을 적용한 공간 표현이 주된 표현 양식이었다. 이것은,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

1) 노버트 린튼에 의하면 액션페인팅은 “미술가가 커다란 화폭을 바닥에 놓고 그 주변이나 그 위를 걸어 다니면서 깡통에 들어 있거나 막대기에 묻힌 물감을 떨어뜨리고 흘려서 그린 것들”이다(Lynton Norbert, 1994/2007, p.230).
 2) 앵포르멜은 비정형이라는 의미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의 폭력성과 야만적 정서를 겪은 작가들이, 본능의 자발성을 무정형의 형태와 거친 마티에르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자 한 유럽 중심의 미술운동이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1953년 《오늘날의 미술 Art d'aujourd'hui》지 10월호에서 비평가인 게강(Pierre Guéguen)은 에스티엔(Charles Estienne)이 조직한 전시회에 대해 야유적인 표현으로 앵포르멜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 뒤 에스티엔은 이 말을 정식 명칭으로 받아들였고, 뜨거운 추상의 경향을 띤 화가들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 후 타시즘이라는 말은 유럽에서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미국에서는 추상표현주의, 액션 페인팅, 드립 페인팅 등으로 쓰였다(네이버 지식백과, 2012).
 4) 국어 용어사전에 의하면 자동기술법이란 의식이나 의도 없이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적 상태로 대할 때 솟구쳐 오르는 이미지의 분류를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이다(구인환, 2006).
 5) 이는 건축사학자 임석재(2008)의 저서에도 언급되어 있다. 초현실주의는 기술적 차원에서 무의식세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프로이트의 심리분석 기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초현실주의의 화풍은 인간의 무의식세계를 찾아내 표현하는 경향으로 타나났고 이를 위해 자동기술법이 활용됐다.

으로 보자면, 정지된 혹은 나누어져 있는 시간들 중 특정 순간이 그림에 담겨지는 것으로써, 사물을 고정화 · 공간화 하는 지성적 논리에 의한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조형 표현이다.



[그림 2] Gustave Courbet, View of Frankfurt am Main, 1858, 54 x 78cm, Städelches Kunstinstitut



[그림 3] Claude Monet, Rouen Cathedral in Full Sunlight, 1893, 107 x 73cm, Orsay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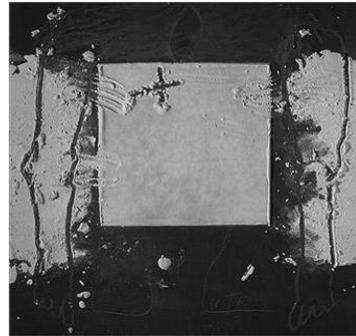
[그림 2]에서처럼, 재현적 표현이 중심을 이룬 19세기의 사실주의 그림들에서는, 특정 시간의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원근법이나 투시도법이 활용된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을 그려낸 19세기 인상주의에서도, [그림 3]과 같이 원근법과 투시도법이 적용되어, 특정 시간에 대한 풍경을 점묘법으로 그려냄으로써 화가가 느낀 인상을 표현한다. 이는 지속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공간화 된 시간이자 단위로서의 시간 개념이 그림에서 표현되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림 4]와 [그림 5]를 보면, 즉흥적 행동을 통한 표현이 시도된 액션페인팅과 앵포르멜에서는, 비논리적이고 순간적이라는 즉흥적 행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원근법이나 투시도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9세기 미술에서 볼 수 있었던 화면 안에서의 특정 시간에 대한 공간 재현은 사라졌고, 작가가 존재하고 있음으로서의 혹은 마티에르를 통해 정형을 부정하며 격렬한 감정적 표출을 하기 위함으로서의 즉흥적 행위 자체가 화폭에 남게

된다. 화면 안에는 하늘과 땅 같은 공간의 구분도 사람과 사물 사이의 거리도 없으므로, 단편적이고 끊어져있는 단위로서의 시간, 즉 어떠한 순간의 재현인 '장면'은 없어졌다. 단지 움직이고 있는 행동 자체가 화면 안에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그림 4] Franz Kline, Mahoning, 203 x 254cm, 1956,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그림 5] Antoni Tàpies, Pintura, 81 x 115cm, 1959, Fundacio Antoni Tapies

이는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사고로부터 나온 '동질적 시간'이자 공간화 된 시간의 표현을 탈피한 조형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원근법이나 투시도법을 통해 사물을 고정화 · 공간화 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것에서 탈피,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자체가 화폭에 기록됨으로써, 즉흥적 행동을 활용한 액션페인팅이나 앵포르멜의 조형표현은 베르그송이 말하는 순수한 지속으로서의 시간 개념을 담아 낸다는 의의가 있다.

4.2. 지속의 두께를 지니는 현재성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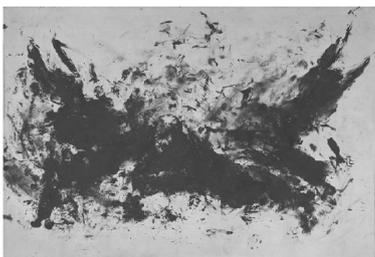
추상표현주의의 액션페인팅은, 큰 화폭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물감을 떨어뜨리고 흘리거나 신체에 물감을 묻혀 화폭 위에서 뒹구는 등의 즉흥적 행동 자체의 궤적이 그림이 된 것이다.

움직이고 있는 진행 자체가 과정 전체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을 통해 작가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음을 화면 위에 드러내고자 한다. 노버트 린튼 (Nobert Lynton, 1994/2011, p.230)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시간 동안 그 영역에서 행하여진 행위 전체를 농축한 동시적인 “정지화면(still)”인 것이다. 이 정지 화면이란, 조각난 혹은 잘라낸 한 컷의 화면이 아닌 하나로 이어져 동시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행동 전체가 담겨져 있는 한 컷의 화면이다. 이를, 존재함의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의식이란 곧 끊임없이 현재 속에 통합되어지는 과거이자 기억의 연속적 축적임을 의미한다고 하는 베르그송의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면, 액션페인팅에서의 행동은 결국 바로 직전의 행동인 과거가 지금의 행동인 현재와 융합하여 연속적인 축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존재함으로서의 기억이란 딱 떨어져 있는 개별 기억들을 이어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과거가 끊임없이 통합되며 지속됨을 의미하듯이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 역시 지금의 행동 안에 과거의 행동이 통합되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음이 그 궤적으로 그림 속에 존재한다.



[그림 6] Jackson Pollock, No 1, 172.7 x 264.2cm, 1948,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그림 7] Yves Klein, La Grande Bataille(ANT 103), 286 x 371cm, 1961, Leeum Museum of Art

이처럼 과거가 스며들어 있는 현재의 행동 궤적은, 잭슨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의 그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림 6]의 얽히고설켜 있는 정지된 물감 자국들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떨어뜨려 각기 잘라내고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직전 행동의 궤적인 물감 자국이 바로 다음 행동의 궤적인 물감 자국과 들러붙어 끊임없이 연결되어 진행 중인 동시적인 존재로서의 물감들 한 덩어리인 것이다.

몸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 위에서 튀구는 즉흥적 행동을 통한 이브 클랭(Yves Klein, 1928~1962)의 조형표현 [그림 7]에서도, 과거의 행동은 현재의 행동과 밀착되며 스며들고, 그러한 행동의 흔적으로써 물감

자국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어느 것이 과거 흔적이고 어느 것이 현재 흔적인지 알 수 없는 한 덩어리의 현재적인 흔적만이 화면 안에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에는, 현재 속에 과거가 지속되게끔, 어느 정도의 두께를 지니고 있는 현재가 존재한다. 알팍한 현재가 아닌 두터운 현재를 담고 있는 즉흥적 행동은 그 움직임의 궤적으로 이를 가시화하며, 이와 같은 지속의 두께를 지니는 현재성을 드러냄으로써 작가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음을 화면에서 보여준다.

4.3.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총체 표현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의미 중 ‘무의식적 내적 세계의 내재’는, 단지 순간적 근육의 움직임으로서의 행동이 아닌, 움직이는 주체 스스로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잠재적 성향이 내재된 즉흥적 행동을 통한 표현을 의미한다. 이는 베르그송이 존재의 지속 속에서 생성되는 모든 순수한 과거의 누적이 창조의 원천이 되는 잠재적 무의식 세계를 만들어 가며, 이것이 순수기억임을 ‘존재함으로서의 기억’에서 언급했다시피, 즉흥적 행동의 심층에는 행동하는 주체가 지속하고 있음으로 인한 순수기억, 즉 그동안 축적되어 잠재된 상태로 있는 과거가 거대한 무의식 세계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잭슨폴록의 작업에서 잘 드러난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그림 6]의 작업 과정을 보면, 폴록이 물감을 흩뿌리는 즉흥적인 행동 하나 하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일 뿐이지만, 이는 단순한 현재의 행위가 아니다. 폴록은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기에 그의 행위로 인해 남겨진 궤적에는, 의식적인 폴록의 사고나 사유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 폴록 스스로도 의식할 수 없는 그의 내면 깊숙이 축적되어 있는 폴록의 과거들이자 잠재된 무의식 세계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앙포르멜의 한 흐름인 타시즘의 조형표현에서는, 화면의 구성을 거부하고 자유로우면서 거친 붓놀림을 이루는 즉흥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고보다 행동이 우선하는 표현이 이루어진다. 피에르 솔라쥬(Pierre Soulages, 1919~)의 작업 [그림 8]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하버트 리드(Herbert Read, 1972/2006, p.263)의 말대로 무의식의 옆방에 있는 상징들을 앞질러서 더 깊은 곳에, "사고의 실제 과정"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곳에 도달하고자 솔라쥬는 힘썼던 것이다. 그 곳은 곧 즉흥적 행동을 하는 주체의

순수기억으로서, 과거가 축적되고 융합된 내적 본질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림 8] Pierre Soulages, Peinture, 162 x 130cm, 1958, Applicat Praz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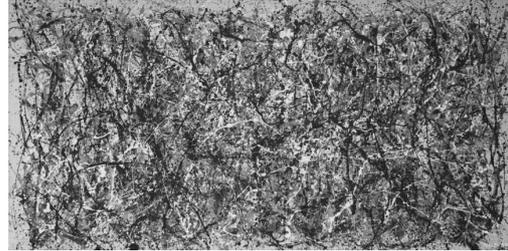
액션페인팅과 타시즘에서 볼 수 있는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에서는 지성적 사고가 아닌 인간의 내적 순수함에 도달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시도되어진다. 이 내적 순수함은 베르그송이 말하는 순수기억으로의 의미를 지니며, 순수기억이 드러나게 되는 즉흥적 행동의 흔적들에는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행동하는 주체의 총체적인 과거가 내재되어 있다.

4.4. 다양한 질적 창조의 지속으로서의 조형 표현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세 번째 의미로 고찰한 '표현의 다양성'은, 비논리적 무계획적인 표현 과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절대 동일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는 베르그송이 말하는 '존재함으로서의 기억'에서 '무수히 다양한 새로운 질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고찰되어 질 수 있다.

액션페인팅의 잭슨폴록 그림을 예로 들자면, 그의 즉흥적 행동 안에는 폴록이 존재함으로 인해 축적된 기억들이자 과거의 총체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그의 즉흥적 행동 속에 다시금 결합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새롭게 드러난다. 한 명의 폴록이 동일한 흠뻑기로 그림을 그리지만, 폴록의 과거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즉흥적 행동을 통해 매 순간 다른 질의 상태를 드러내며 폴록의 존재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질적 창조는 폴록의 즉흥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되어지며, 과거와 함께 지속하고 변화하는 현재를 화면 안에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화면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 폴록 자신이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의 화폭 안에 폴록 행동의 궤적인 물감 흔적들이 모두 다른 질을 창조해 내는 것임은 물론, [그림 6]과

[그림 9]에서처럼 각각의 화폭 역시 각기 다른, 절대 동일할 수 없는 개별적인 질들을 창조해낸다. 이러한 질적 창조는 화폭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완성된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또 다시 다른 화폭 안에서 지속되며 폴록의 창조는 계속 이어져 간다.



[그림 9] Jackson Pollock, No 31, 172.7 x 264.2cm, 1950,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그림 10] Jean Fautrier, Tête d'otage No. 3, 35.5 x 27.9cm, 1943, Musée de l'Île de France

앵포르멜 화가인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는 자신의 내면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끔찍한 고통을 받는 인간에 대한 내적 인상을 현재의 행동 속에 불러내어 결합시킨다. 이러한 그의 내적 인상은 불러내어질 때마다 즉흥적 행동을 통하면서 각기 다른 현재와 결합하며 다양한 감정을 화면 위에 표출해낸다. 그 다양하고 또한 격렬한 감정 표출을 가능케 하는 즉흥적 행동은 두터운 재료와 만나면서 포트리에 자신만의 고유한 질을 마티에르(matiere)의 흔적으로서 그림 [10]과 같이 드러내며, 이는 특히 인질 연작에서 각기 다른 다양한 질적 창조로서 표현되어진다. 즉, 포트리에의 내적 인상이자 기억은 지속하는 현재의 즉흥적 행동과 결합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감정적 상태로 각 화면 안에 드러나는 것이다.

존재로서의 기억이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으로 무한히 다양한 질을 창조한다는 베르그송의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에서는, 행동하는 주체의 과거가 현재의 즉흥적 행동을 통함으로써 질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화폭 위에 흔적을 남긴다. 이는 곧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

이 다양한 질적 창조의 지속으로의 조형표현을 가능케 함을 의미한다.

4. 결론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은 논리적 사고 판단의 과정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계획 없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의 흔적이므로, 작가의 감정이나 느낌을 더욱 자유롭고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표현의 장점을 지닌다. 이는 '표현적'이어야 하는 미술 창작 활동에 있어 매우 적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조형 표현의 한 방법이므로 그 중요성에 대한 고찰과 새로운 의의 발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대한 한계의 발견으로부터 출발하는 존재론적 철학과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의미 및 사상적 배경이 서로 유사함을 발견하고, 베르그송의 이론으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의 가치를 새롭게 고찰해보았다.

베르그송의 이론에서, <실재로서의 시간>은 '흐르고 있는 순수한 지속'의 개념으로, <존재함으로서의 기억>은 '잠재적 무의식 세계를 축적하는 순수기억', '끊임없이 현재 속에 통합되는 과거', '무수히 다양한 새로운 질의 창조'라는 개념으로, 존재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성의 지향>·<잠재적 무의식 세계의 내재>·<표현의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을, 추상표현주의의 액션페인팅과 앵포르멜 그리고 타시즘의 표현사례들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은, '공간화된 시간 표현을 탈피하는 새로운 조형표현', '지속의 두께를 지니는 현재성의 표현',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총체 표현', '다양한 질적 창조의 지속으로서의 조형표현'이라는 네 가지 새로운 의의로 고찰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표현에 대한 연구와 실험들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표현'으로서의 그림으로 예술의 궁극적 목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조형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구인환 (2006). 『국어 용어사전』. 서울 : 신원문화사.
- 김복수 (2001). 「베르그송의 지속 La duree이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추상언어로부터 이미지 회화까지」,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현 (2008). 「회화공간의 변화에 관하여 : 르네상스의 원근법으로부터 추상표현의 공간까지」,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재희 (2010). 『베르그송의 잠재적 무의식』. 서울 : 그린비.
- 몸문화연구소(2008). 『기억과 몸』.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 송지은 (2008) 「즉흥적 표현기법에 의한 도자조형 연구 : 추상표현주의와 관련하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양희영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베르그송과 들뢰즈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임석재 (2008).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서울 : 휴머니스트.
- Edwards, B (1999). *The new drawing on the right side of the brain*, 강은엽 역 (2000).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 서울 : 나무숲.
- Huyghe, R. (1960). *L'art et l'âme*. 김화영 역 (1979). 『예술과 영혼』. 서울 : 열화당.
- Kern, S. (2003). *The culture of time and space, 1880-1918*. 박성관 역 (2004).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서울 : 휴머니스트.
- Lynton, N. (1994). *The story of modern art*, 윤난지 역 (2007). 『20세기의 미술』. 서울 : 예경
- Read, H. (1972). *Meaning of art*, 임산 역 (2006). 『예술의 의미』. 서울 : 에코리브르
- 네이버 국어사전. (2012.8.10),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8128400>
- 네이버 국어사전. (2012.8.10),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433700>
- 네이버 지식백과. (2012.8.10), <http://terms.navr.com/entry.nhn?docId=895189&mobile&categoryId=1389>